

장세일 영광군수 “군민 생활안정·경제회복 최우선 과제”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난 2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불황과 경제 위기 속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총 63개 사업·958억 투입...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농수축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복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장세일 영광군수가 총 63개 사업에 958억원을 투입하는 민생경제 회복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은 첫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강화 지원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벼 재배농가 ha당 111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소규모 한

우농가에 대해 사료비 인상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조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 및 TMF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원예작물 우량묘를 시종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농수축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책을 확대한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단가 200원을 인상하고, 월 10만원씩 30만원의 부식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2천200명

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 지원, 은수업계 종사자 대상 1인당 3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며,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은 민생 제감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927억원, 2025년 설 명절 전까지 총 2천54억원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장세일 군수는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가축시장, 24년 만에 현대화 시설 갖춰 재오픈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거래 시간 단축·투명성 확보

강진가축시장이 24년 만에 현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용 승인을 받은 강진가축시장이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01년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일원에 조성된 강진가축시장은 연평균 약 1만8천두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남 12개 가축시장 중 상위 규모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휴게 공간에 따른 신속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강진완도축협에 신축 사업비를 지원했다. 새로 건립된 가축시장은 부지 1만588㎡에 연면적 1천73㎡ 규모다. 한우 경매장, 휴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반 조성비와 건축비 등



새롭게 단장한 강진완도축협 가축경매시장(왼쪽)과 내부 모습.

총 22억여원이 투입됐다. 이번 현대화된 시설은 강진군 내 1천40 한우농가에 출하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강진한우 브랜드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한우 340두를 동시에 경매할 수 있어 거래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거래가격의 투명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제증뿐만 아니

라 체고와 제장까지 측정할 수 있는 우형기 3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번식우와 송아지의 체형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우량한우가 더욱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은 한우농가의 신뢰를 높이고, 타지역 출하 농가의 유입을 통해 지역



<강진군 제공>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진완도축협은 내년 1월 별도의 개장식을 개최, 새롭게 단장한 시장을 축하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우농가와 군민들은 신축 가축시장이 강진군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광주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맞손’

광주 시민 건강 증진...해양치유 프로그램 20% 할인

완도군과 광주시가 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광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완도가 보유한 청정한 해양환경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 증진 활동인 해양치유가 광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2단계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완도해양치유센터 전체 이용객 중 광주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광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광주시와 유익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 ‘1004섬 기념 의자’...‘섬’ 미학 제공

기증 릴레이 참여 ‘호응’...섬 곳곳 볼특정 다중 공간 설치

신안군은 25일 “1004섬 기념의자 기증 릴레이가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끌며 주민과 공무원, 사회단체장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의자 기부 릴레이를 통해 현재까지 기증받은 의자(사진)는 현재까지 186개다. 기증된 의자들은 주요 정원, 관광지, 선착장 등 볼특정인들이 많이 찾는 다중 공간으로 1004섬 신안의 곳곳에 설치돼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쉬어가는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문화 그리



고 쉼이 주는 공통 의미 휴식을 주고 싶어 릴레이를 시작하게 됐다”며 “김환기 작가의 에세이 ‘수화’에 나오는 ‘가로수 그늘마다 시민의 걸상이 놓이길 바란다’라는 바람처럼, ‘녹화운동과 병행한 벤치 운동’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호 기자

영암군 ‘삼호 용당리 갯벌’ 지킨다

28억 투입...연안 침식·유실 방지 등 친수 연안 조성

영암군은 25일 “해양수산부의 국비 28억원으로 삼호 용당지구 연안 정비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정부의 2020-2029년 ‘제3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기간에 ‘삼호 용당지구 연안 정비사업’을 건의했고, 지난 25일 해수부의 최종 반영 연락을 받았다. 과거 갯벌이었던 삼호읍 용당리 앞바다는 영암 어민의 생활터전이었지만, 계속되는 갯벌 유실로 자갈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에 인구 밀집이 지속돼 갯벌 유실, 연안 침식 등의 우려

가 커지며 연안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은 2025년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해 연안 침식과 갯벌 유실을 막는 동시에 친수 연안 조성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최근 영암군이장단 월례회의에서 알리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삼호 용당지구 연안 정비사업으로 영암의 유일한 갯벌을 지켜내고, 군민의 쉼터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 기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5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섬연안 생물다양성 교육기부 활동을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5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4년간 4만5천여명에게 섬·연안 생물자원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교육기부 활동인 ‘교육기부 드림로드(dream road)’ 프로그램(사진)에 도서산간지역학교, 지역아동센터,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2천200여명이 참여해 교육기

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으로, 에듀센터 개관에 따라 새롭게 개편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기부 수혜 인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조용환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은 모든 국민이



해남군, 연말연시 인파밀집 안전대책 나선다

안전관리책 개최...유관기관 합동 분야별 논의

해남군은 25일 “전남 군청 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인파밀집 행사 및 해남·해맞이 지역축제에 안전관리를 위해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해남소방

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군부대 등 재난관련 10개 유관기관장 및 축제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땅끝 해남·해맞이 축제, 북일면 오소재 해맞이 축제, 화원면 오시아노 해맞이 노을페스타 등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교통,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 인파밀집 대책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는 30·31일에는 축제장에 대해 경찰·소방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인파밀집 사고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재난안전상황실·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유관기관과 상시 안전관리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

화재사고·해양사고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금까지 지역 축제 안전관리 강화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역 축제를 질서있고 안전하게 개최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도 해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파 밀집 사고 등에 대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